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1. 12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씨 마른 전세…은행 전세대출도 역대급 감소

아시아경제 https://zrr.kr/mXUDTi

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2조6388억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한 영향으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은행권 "단기 稅부담 늘어"

서울경제 https://zrr.kr/AOomwi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인뱅서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2년새 반토막…고금리·사금융에 내몰려

매일경제 https://zrr.kr/lVoZjZ

금융위원회가 2024년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1금융권에만 도입했다가 이듬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뒤 1년 사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공급액이 22% 감소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내세워온 인뱅서도 신용대출 공급을 빠르게 줄이며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시장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

"신규 대출만 생산적 금융?" 볼멘소리 나오는 은행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sNogGv

은행권에서는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내준 대출의 만기 연장분 역시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기업에 새로 공급된 자금만 생산적 금융으로 인정할 방침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이유로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해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면서 당국이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

투자자예탁금 사상 첫 90조 돌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RPwA2S

올 들어 코스피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자, 증시 진입을 앞둔 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
특히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늘며 예탁금 회전율도 40%대 수준으로 큰 폭 상승

"연초 절세 개미 잡자"… ISA·연금 수수료 경쟁 나선 증권사들

조선비즈 https://zrr.kr/asurlc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에 제동을 걸자, 업계의 마케팅 화력이 ISA와 연금 상품으로 급속히 옮겨붙고 있는 모습
현재 우대 수수료 이벤트를 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GA 인센티브 신설 요구, 제도 취지 흔들

머니투데이 https://zrr.kr/n5VQJm

보험판매수수료 분급확대를 앞두고 초대형 GA들이 보험사들에 25회차(3차 연도)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변수로 떠올라
보험사들은 제도취지와 비용부담을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다른 보험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

삼성화재, GA 지점장→자사 본부장 대거 모집 시도

보험매일 https://zrr.kr/GZ51wu

삼성화재가 지난해 말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및 생명·손해보험 지점장을 대거 자사 본부장으로 모집
GA 소속 단점과 자사 이동 시 혜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이직을 권유하고 있어 GA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서울경제 https://zrr.kr/LIjJxr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허용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으로, 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

美상원 클래리티법 심사…"기관 투자 촉매제 될 것"

서울경제 https://zrr.kr/xGetff

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